



The man without a wedding garment, Jan Luiken.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마태 22,12)

■ 미사전례

- 제 1독서: 이사 25,6-10ㄱ
- 화 답 송: ◎ 저는 오래 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필리 4,12-14,19-20
- 복음 환호송: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 음 : 마태 21.1-14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저는 오래 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9

이제 주부적(注賦的) 영성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말 그대로 ‘(저절로) 주어진 영성’이라는 의미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입하는 영성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저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신비적 영성이 바로 주부적 영성이다. 이는 소위 신비신학의 범주에 속한다. 많은 이들이 신비신학, 탈혼, 관상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어렵게 생각한다. “성인 성녀들에게나 가능한 특별한 영성이야.”,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나에겐 일어나지 않아.”, “하느님은 특별하고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발현하셔”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신비는 멀리 있지 않다. 신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신비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우선 인간 자체가 신비다. 아니, 나 자신 자체가 신비다. 잠자는 아기의 얼굴을 보라. 나 자신의 손을 보라. 머리카락의 무수한 숫자를 생각해 보라. 신비 그 자체다.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났을 때는 손, 발 같은 것이 없었다. 발가락, 손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신비다. 이 모든 육체의 신비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비신학의 요체다. 이것을 깨닫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관상신학이다.

이처럼 인간 자체가 신비 그 자체인데 사람들은 신비를 멀리서 찾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그래서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주어진 선물을 선물로 느끼지 못한다. 구원의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져 있는데도, 그 줄을 밧으로 착각하고 잡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인간이 불쌍해서 하느님은 가끔 하늘에 십자가도 보여주시기도 한다. 치유의 은사도 내려주신다. 나약하고 신비를 볼 줄 모르기에 성모님도 가끔 발현하시는 거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신비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외적 신비에 매몰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시는 것들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예수님과 성모님이 ‘짤’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에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special) 것이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올까말까한 이러한 신비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신비스런 창조물인 나를 통해 신비 자체이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비 자체이신 하느님과 합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탑이다. 관상의 탑이고 영성의 탑이다. 인간은 이 탑을 쌓아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멀리 보지 말자. 밥 먹는 행위 자체도 진정한 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밥을 먹는 행위 자체도 어마어마한 신비다.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하나, 김치 조각 하나 하나가 모두 신비다. 하느님의 섭리로 인해 땅에서 양육되어진 그 곡물들이 신비스런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이것을 알면 식사 시간 자체가 진정한 하느님과의 합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신비를 깨닫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밥이 설익었네 타박하고, 반찬 투정도 부리는 것이다. 아내가 구운 콩치의 꼬리가 조금 타면 어쩐가. 된장 맛이 구수하지 않으면 어쩐가. 우리는 혹시 큰 종이에 찍힌 점 하나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넓고 흰 종이를 보지 못하고 점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믿음’과 함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수동적 신앙’이다. 수동적이라는 말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신앙에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능동적 신앙이 적극적 의지를 가진 믿음을 의미한다면 수동적 신앙은 주어지는 은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이 직접 이끄신다. 우리는 인간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 형성의 관계다.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형성시킨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절대자의 뜻을 구현해 나가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협조자다. 하지만 하느님은 협조자가 아니다. 주인이다. 그분이 원하시면 따라야 한다. 그 앞에서 내 뜻 내 의견은 접어야 한다. 이유가 있다.

<가톨릭신문 제2758호 (2011년 8월 14일) -정영식 신부 (효명고등학교 교장)>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보좌신부 : 정재덕(안토니오) ☎323-493-2727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성삼 소식

☞ 사목회 이임(2018-2020)

-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성삼 성당을 위해 소임을 다하신 고대준(바오로)회장님과 이진석(예레미야)총무님, 그 외 사목회 임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LA 교구 2차 헌금(World Mission Sunday)

- 일시: 10월 18일(전교주일) 주일 미사중

☞ 신 영세자 첫 고해

- 일시: 10월 18일(주일)

☞ 감사합니다.

- 故서서교(요셉)의 장례미사에 함께 하시어 기도해주신 교우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 주일학교 개학 및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7:0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 주일학교 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 봉사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정 안토니오신부님 ☎323-493-2727

우리들의 정성 (2020. 10. 4 현재)

교무금	6,325.00	교무금(23명) 강진, 고대준, 구준우, 김명자, 김영해, 김윤잔, 김창기, 김호, 류지선, 박효신, 손정애, 신규선, 여지홍, 우인주, 유숙자, 이길웅, 이용배, 이윤희, 주영만, 주태근, 최홍준, 한선영, 한정량, 감사헌금(4명) 김명자, 여지홍, 이윤희, 정혜숙, 성소후원금(15명)
주일헌금	997.00	
감사헌금	300.00	
성소 후원금	34.00	



신임 사목회 임원(10/2020 - 6/2022)

부서	직책	이름(세례명)	담당단체
회장	회장	박기종 프란치스코	하상회, 요셉회, 대건회
부회장	부회장	백현숙 로즈마리	안나회, 골롬바회, 성모회
총무부	부장	김혜진 스텔라	
	차장	강진 이시돌	
	차장	김효신 젬마	
전례부	전교수녀	김경순 네온수녀 / 제대회	제대회, 해설단, 성가대, 성인복사단,
복음화부	부장	임상도 스테파노	꾸리아, 울뜨레야, 파티마의사도직, 성령기도회, 예비자교리반, 성경공부, 좋은아버지모임, ME,
	차장	정혜숙 엘리사벳	
지역부		공석	구역, 반.
사회복지부	부장	이정미 루시아	빈첸시오회, 연령회, 금요성경반.
	차장	이승복 다니엘	
청소년부	부장	오경찬 마태오	주일학교, 아동복사단, PTA, SSEAM, 성삼 한국학교.
	차장	홍익표 사도요한	
	차장	이경란 젬마	
전산 홍보부	부장	류진혁 토마스	도서관.
시설 관리부	부장	박관 미카엘	
	차장	김영진 스테파노	
재경부	부장	방도연 다윗	헌금 봉사단.
	차장	강주완 올리아나	
감사		한완영 베드로	
		허관수 라이문도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 베이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어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무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